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가정폭력경험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된 보호요인 탐색:

자기효능감,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교사의 지지를 중심으로



2018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아동심리및상담 전공

배 태 상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가정폭력경험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된 보호요인 탐색:

자기효능감,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교사의 지지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이 희 영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아동심리및상담 전공

배 태 상

배태상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8월 24일



주 심 교육학박사 이 경 화 (인)

위 원 교육학박사 황 희 숙 (인)

위 원 철 학 박 사 이 희 영 (인)

목 차

Abstract	v
I .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5
3. 용어의 정의	6
가. 학교적응유연성	6
나. 보호요인	6
(1) 자기효능감	6
(2)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7
(3) 교사의 지지	7
II . 이론적 배경	8
1. 가정폭력	8
가. 가정폭력의 정의와 특징	8
나. 가정폭력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9
2. 학교적응유연성	11
가. 적응유연성의 개념	11
나. 학교적응유연성의 개념	14

3. 가정폭력 경험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의 보호요인	15
가. 보호요인	17
나. 자기효능감	17
다.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19
라. 교사의지지	20
Ⅲ. 연구방법	22
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22
2. 연구도구	23
가. 자기효능감	23
나.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24
다. 교사의 지지	25
라. 학교적응유연성	26
3. 자료분석	26
Ⅳ. 연구결과	28
1. 가정폭력경험 아동의 일반적 배경(성별, 학교급)에 따른 학교적 응유연성의 차이	28
가. 가정폭력경험 아동의 성별에 따른 학교적응유연성의 차이	28
나. 가정폭력경험 아동의 학교급에 따른 학교적응유연성의 차이	29

2. 가정폭력경험 아동의 자기효능감,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 소통 , 교사의 지지가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30
가. 가정폭력경험 아동의 자기효능감,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 소통, 교사의 지지, 학교적응유연성의 일반적 경향성	30
나. 가정폭력경험 아동의 성별, 학교급, 자기효능감,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교사의 지지, 학교적응유연성과의 관계	30
다. 가정폭력경험 아동의 자기효능감,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 소통, 교사의 지지가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33

V. 논의 및 결론 35

1. 논의	35
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에 대한 아동의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	35
나. 가정폭력경험 아동의 자기효능감,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 소통, 교사의 지지가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38
2. 결론 및 제언	41

참고문헌 43

부록 - 설문지 55

표 목 차

<표 1> 연구대상 아동의 일반적 경향성	23
<표 2> 자기효능감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24
<표 3> 교사지지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25
<표 4> 가정폭력경험 아동의 성별에 따른 학교적응유연성의 차이	29
<표 5> 가정폭력경험 아동의 학교급에 따른 학교적응유연성의 차이	29
<표 6> 가정폭력경험 아동의 자기효능감의 일반적 경향성	31
<표 7> 가정폭력경험 아동의 성별, 학교급, 자기효능감, 부모- 자녀의 개방적 의사소통, 교사지지, 학교적응 유연성간의 상관관계	32
<표 8> 가정폭력경험 아동의 자기효능감, 부모와 자녀의 개방적 의사소통, 교사지지가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34

요 약

선행 연구에 의하면,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부적응행동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을 경험한 모든 아동들이 학교에서 부적응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는 아동들에 관심을 갖고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변인들이 무엇인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에서 일반적 배경(성별, 학교)에 따른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가정폭력경험 아동의 자기효능감,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교사의 지지가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의 대상자는 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에 해당하고 학교에 재학중이면서 실제 가정폭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아동이다. 이들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보호시설로 분리되어 있거나 원가정에서 생활은 하지만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개입 기관으로부터 사례관리를 받고 있으며, 대상수는 총 201명으로 불성실한 자료 86명의 자료는 제외하고 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115명에 대해 분석을 했다

연구도구는 자기효능감,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교사의 지지, 학교적응유연성에 대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회수된 자료는 SPSS 23.0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아동의 일반적 배경(성별, 학교급)에 따른 학교 적응유연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을 하였다, 가정폭력 경

험 아동의 자기효능감,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교사의 지지가 학교 적응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경험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은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여아가 남아보다, 초등학생이 중학생과 고등학생보다 학교적응유연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가정폭력경험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에는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 교사지지가 영향을 미쳤으나 자기효능감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폭력은 인간이 집단을 구성하면서부터 존재하는 현상으로 타인을 굴복 시키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본능의 일종이며 과거 뿐 아니라 현대에 이르러서도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인 가정에서부터 사회관계에서까지 지속적으로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인 사회생활 속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행위는 외부로 드러나기 때문에 법으로 제지함에 무리가 없지만 가정 내에서의 가족 간 폭력은 가정이라는 특수한 집단속에서 발생하므로 피해자가 직접 외부에 알리거나 목격자가 대신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예방과 치료가 어렵게 된다.

가정폭력은 단순히 가정 내에서 시작해 내부에서 끝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킨다. 예를 들어, 외도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다 아내 살해(인천일보, 2017.11.29), 자녀에게 “엄마는 나쁜x이다”를 외치라고 강요한 남편이 7세 자녀 앞에서 5시간 동안 폭행하고 이런 모습을 본 자녀는 울다 지쳐 잠듦(JTBC 소셜스토리; 가정폭력을 탈출한 아내, 2017.11.28.)을 보더라도 가정폭력이 사회구성원의 정신적 충격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단순 가정사로 내몰면서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가정사에 대해 전통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의 마찰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써 자녀 앞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폭력을 행사

한다.

가정폭력은 자녀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가정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아동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 경험이 기억 속에 잔재되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강박장애 등 다양한 형태의 정신장애를 일으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성장기에 학습된 폭력을 그대로 또는 변질시켜 외형으로 나타내게 된다(김해선 사건, 2000).

성장기 아동이 사회라는 장으로 나아가기 전 가장 먼저 접촉하는 곳은 가정이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은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폭력을 더 많이 행사하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문제를 일으킨다(김정옥, 박경규, 2002).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은 부모로부터의 정상적인 애착관계를 통해 성장한 아동에 비해 우울이나 불안증상을 더 많이 나타내며 공격적 성향이 증가하는 등 정신적인 문제를 나타내고, 교우관계 또한 원만치 못해 학업성적이 떨어지는 등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과 사회적 인간관계에서의 부적응 결과를 나타낸다(김재엽, 2003).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은 공격적 성향이나 비행행동 문제 등의 외현화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사회적 능력 역시 정상적인 아동에 비해 더 낮다(Kernic et al.; 2003 Toth et al., 2002). 또한 이들은 학교생활에서 또래와의 관계나 학업적 영역에서의 어려움을 나타내며 (Rowe & Eckenrode, 1999; Shonk & Cicchetti, 2001; Lansford et al., 2002) 비행행동에도 더 많이 관여한다(엄명용, 2001; 전귀연, 배문조, 2001).

이처럼 가정폭력 경험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하지만, 가정폭력에 노출된 모든 아동이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가정폭력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보이는 아동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적응유연성(resilience)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적응유연성이란 부적응적 정서를 유발하는 환경적인 스트레스에 유연하게 대처해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오게 하는 개인의 능력을 말한다(유다미, 2015). 이와 관련해 과거의 연구는 주로 위험요인의 영향을 살피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최근의 연구는 보호요인을 밝히는 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많은 연구들이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을 찾으려는 시도를 했다. 이는 학령기 아동은 일상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적응유연성에 있어서 보호요인의 작용이 중요한데 보호요인이란 위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능감을 증가시키는 요인(김민강, 2009)을 말한다. 예를 들면, 해외 연구에서는 개인의 내적통제(Moran, Eckenrode, 1992), 개인의 높은 인지력과 통제성(Cicchetti, 1993; Herrenkohl, 1994), 자존감(Romans, 1995)이라는 보호요인이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쳤고, 국내 연구에서는 장덕희(2001), 정은숙(2003)의 연구에서 자긍심, 내적통제, 또래 또는 교사의 지지가, 최종술(2005)은 자긍심, 부모의 양육태도, 지역사회서비스가, 김난영(2008)은 정서조절능력, 부모와의 애착, 친구와 교사의 지지가, 장덕희(2010)는 내적통제력, 부모와의 긍정적 관계, 친구와 교사의 지지가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혀졌다.

이처럼 학교적응유연성의 개념은 아동의 결점 또는 문제행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오히려 역경을 성공적으로 다루어 낸다는 새로운 시각으로 본다는 데 대해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본 연구도 이러한 시도의 연장선상에서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주는 보호요인을 발견하고자 한다.

사실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의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을 발견하려는 시도는 이미 있었다. 예를 들어, 김설화(2012)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친구와 교사 및 다른 성인의 지지가 중요한 요인이었고, 이상준(2006)은 종교적 신념, 긍정적 착각, 대처기술, 가족응집성, 부

모와 자녀의 의사소통, 지역사회서비스 인지 및 경험, 긍정적인 학교 경험을, 정인숙(2003)은 내외통제감, 부모의 양육태도, 교사지지가 중요한 요인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가정폭력경험이라는 고위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상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보호요인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그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특정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 간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을 비교하거나 실제 가정폭력을 경험해 보호시설에 있었다고 해도 취학전의 아동 또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생활상의 적응양상을 탐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고자 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에 해당하고 학교에 재학중이면서 실제 부모 간 가정 내에서 심각한 폭력 행사로 인해 사법기관이나 다른 개입기관을 통해 사례관리를 받고 있거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원가정에서 지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보호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에서의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선행연구에 의하면,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면, 유난영(2008)은 빈곤한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적응정도가 높았고, 원가정에서 지낼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해 청소년쉼터에 거주하는 학생의 학교적응유연성을 조사한 박계림(2013)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적응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혜미(2005)의 연구에서도 여자가 남자보다 사회적지지를 높게 지각한다는 결과를 나타내었고, 김미선(2009)의 연구에서도 빈곤이라는 위험요인을 가진 아동 중 여아가

남아보다 학교적응유연성에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고 했다.

또,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은 학교급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강경희(2012)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장애와 기초수급 조건이라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저학년의 아동이 고학년의 아동보다 학교적응유연성에 있어 적응정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고, 김미선(2009)의 연구에서도 빈곤이라는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라도 저학년의 아동이 고학년의 아동보다 학교적응유연성에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보호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기에 앞서 성별과 학교급별에 따른 학교적응유연성의 차이를 먼저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들의 학교적응을 위한 처치 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문제

위에서 언급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의 일반적 배경(성별, 학교급)에 따라 학교적응유연성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가정폭력경험 아동의 자기효능감,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교사의 지지가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 용어의 정의

가. 학교적응유연성(school adjustment resilience)

일반적으로 적응유연성이라 함은 스트레스, 폭력 등의 위험요인을 극복하는 연구에서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거나 덜 받으며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으로써(김경섭, 2007) 고위험의 역경속에서도 학업성취도가 높고 학교생활에 대하여 흥미를 가지며 학교규칙을 준수하는 능력(박현선, 1998)을 의미하나, 본 연구에서는 박현선(1998)의 학교적응유연성 척도로 얻은 점수를 의미한다.

나.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

보호요인이란 부적응적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위험상황으로부터 개인의 반응을 개선해 심각한 위험상황에도 불구하고 적응적 기능을 유지하는 요인(Rutter, 1990)으로, 본 연구에서의 보호요인이란 가정폭력이라는 위기적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자기효능감, 부모와 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 정도, 교사의 지지를 포함한다.

(1) 자기효능감

일반적인 자기효능감이란 성공에 필요한 신체, 정신적 근원을 발생시키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Eden & Aviram, 1993)으로써, 특정 결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신에 대한 판단과 신념을 말하나

(Bandura, 1986), 본 연구에서는 홍혜영(1995)이 변안한 것을 초등학생(김민강, 2009), 고등학생(김양희, 2009)을 대상으로 사용해 자기효능감 척도로 얻은 점수를 의미한다.

(2)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 중 하나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더불어 많은 선행연구에서 발견된 변인으로서(홍봄내, 2006; 장진아, 2006; 정인숙, 2003), 청소년의 지각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면 자녀의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황희선, 2006), 가정의 분위기가 화목할수록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한다고 하였다(최선남, 199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김윤희(1989)가 변안해 청소년(유현옥, 2010)과 초등학생(소옥현, 2006)을 대상으로 사용해 부모와 자녀의 개방적 의사소통 척도로 얻은 점수를 의미한다.

(3) 교사의 지지

일반적으로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 중 사회적지지 요소의 한 변인으로 또래의지지, 지역사회 서비스 인지와 더불어 발견된 변인(이상준, 2006; 정인숙, 2003; 최종술, 2005)으로서, 학생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교사가 제공하는 학생에 대한 지지를 의미하나(김남희, 2011), 본 연구에서는 김영희·민병기(1999)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을 기반으로 김남희(2011)가 변안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해 교사지지로 얻은 점수를 의미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정폭력

가. 가정폭력의 정의 및 특징

현행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간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 피해를 수반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즉, 가정폭력은 폭력의 주체와 객체가 모두 가족구성원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Gelles, 1997).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정신·재산적 폭력 행위를 의미하는데, 가족구성원 중 어느 일방이 나머지 가족 구성원에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체·언어·정서·성적 학대 모두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장덕희, 2001).

가정은 사회관계의 가장 기본이며 배려와 신뢰를 경험하는 기초적인 장이다. 또 가정의 핵심 구성원인 부부는 한 가족을 태동시키며 가족이라는 관계를 유지시킨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부는 성숙한 남녀가 결혼을 통해 완성되는 관계로서 육체·정신·심리·정서·경제적 결합 등을 기초로 형성되는 인간관계의 핵심이다(송정아, 2003).

하지만 부부관계가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흐르는 경우는 회복하는데 꽤 오랜시간이 걸리거나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기도 한다(Young & long, 2003). 가정의 기본적인 시작이 부부관계이지만 갈등을 일으키며 건전한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을 때는 부부 뿐 아니라 부부

의 자녀에게도 악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부부 뿐만 아니라 부부의 자녀에 대한 폭력은 의도된 행동으로서 반드시 신체적 폭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성적 피해, 정신적 피해인 방임, 유기, 언어적 폭력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의 가정폭력 경험 아동은 자신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부모 간 폭력상황을 직·간접으로 목격한 경우의 자녀로 정의한다.

나. 가정폭력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폭력은 물리적 또는 위압감을 이용해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상대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 폭력은 우리나라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단순 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 상해(형법 제257조 제1항), 모욕(형법 제311조), 재물손괴(형법 제366조) 등을 의미하며, 아동을 객체로 규정한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이러한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하고 있다(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성장기의 아동은 환경을 습득하며 성장한다. 즉, 폭력적인 환경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폭력을 학습한다는 것이다. 가정은 학습의 최초의 장이다.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폭력적 행위들은 아동에게 내재화되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폭력을 사용하게 된다(조미숙, 이운로, 1999). 다시 말해, 가정폭력의 영향은 아동기에서 끝나는 단기적인 사안이 아닌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형성되는 개인의 인격과 대인관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아동에게 있어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경험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적응을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 두통이나 복통, 말더듬과 같은 신체적 증상은 물론 공포, 수면거부 등의 심리적 증상과 폭행, 가출 등의 행동장애까지 나타난다고 한다(김정란, 2003).

가정폭력은 직접적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더라도 폭행장면을 폭격하는 정서적인 학대로도 표현될 수 있다.

학대의 유형 중 정서적 학대는 외관상의 상처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정의하는데 있어 학자들 간에도 논쟁이 있는데 Glaser(2002)와 Suzul(1984)은 아동에게 무관심, 거부적 태도, 방관, 조장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Steel(1980)은 경멸, 모독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포함하는 비신체적, 적대적, 거부적 형태라고 정의하였다.

국내에서는 김난영(2008)이 정서적 폭력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직접적인 물리적 행사는 아니지만 수치심, 굴욕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 행위, 공포심이나 위협적 행위, 다른 자녀와의 비교로 주눅들게 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고 했다. 아동이 경험하는 부모의 자신에 대한 학대나 부모간의 폭력 범위는 광범위하다. 부모와 같은 공간에 머물면서 부모로부터 직접적인 신체적 학대를 경험하거나 부모간의 싸움을 직접 목격하는 경우 또는 싸우는 부모와는 다른 공간에 있으나 부모가 싸우고 상호 폭력을 행사하는 소리를 듣고 이를 인지하는 경우, 부모가 아동과 다른 공간에 있지만 아동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를(김난영, 2008; 유정원 2006) 포함한다.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부모 쌍방 또는 일방의 폭력은 기본적으로 부부 당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며,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에게 건전한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해 이러한 상황을 학습한 자녀들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왜곡시키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장덕희, 2001).

아동은 최초의 대인관계라고 표현되는 부모를 통해 일생동안 접촉하게 되는 대인관계 기술과 여기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처방식을 배우게 된다고 한다(Bretherton, Ridgeway & Cassidy, 1990). 즉, 부모의 건전하지 못한 양육태도는 대인관계를 비롯해 다양한 문제해결 방식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이혜진, 2002), 아동기의 학대경험은 일생동안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조은정, 2004).

폭력가정의 위험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목격자, 관찰자,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 등으로 표현하는데 이중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이유는 아동이 폭력 장면을 직접 목격하거나 관찰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간에서 소리를 듣거나 폭력 결과를 보는 등의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경우를 포함하기 때문이다(김설화, 2012).

2. 학교적응유연성

가. 적응유연성의 개념

인간은 일생을 살면서 크고 작음 또는 좋음 나쁨 등의 다양한 경험을 겪게 마련이다. 특히 성장과정인 아동기에 부정적 환경을 습득하게 되면 학교를 시작으로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사회생활 전반에 부적응적 행동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 그 동안의 일반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개인이 겪게 되는 고난과 역경이 반드시 부적응적 행동을 나타내면서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위험환경 속에서도 개인 또는 주변 환경적 요인에 따라 그 영향은 달라진다(유성경, 2002).

Kobasa(1982)는 사람을 동일한 스트레스 조건하에서 질병 취약 여부에 대해 구분할 수 있는 탄력적 특징으로 심리적 강인성이라는 개념을 제안한 바 있다. 강한 사람은 자신이 경험하는 사건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과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념, 삶에 대한 깊은 관여와 몰입 능력, 예상할 수

있는 변화를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도전으로 인식해 발전의 계기로 인지하는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적응유연성은 초기 성격구조로 개념화되고 역동적 성격 과정을 설명함(Block, 1980)으로써 이론적 기반을 구축했는데, 좁은 의미에서는 개인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상황이나 환경적 수반성을 변화시키는 적응적인 자원을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내적 또는 외적 스트레스에 대한 융통성 있는 적응력을 말한다(최태은, 2007).

적응유연성이라는 용어는 Rutter(1985)와 Garvey(1980)가 스트레스적 조건과 역경 속에서도 잘 적응하며 스트레스에 저항을 나타내는 아동들을 발견하면서 처음 언급되어 이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김설화, 2012, 재인용).

적응유연성(Resilience)이란 역경을 겪고 있거나 과거 있었음에도 이전의 정상적인 적응수준으로 되돌아와 회복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개인이 정상적인 발달과 적응에 장애가 될 만한 환경속에 있음을 조건으로 위험요인에 노출되지 않은 비슷한 또래에서 기대하는 적응수준을 유지함을 뜻하는 것이다(김난영, 2008).

적응유연성은 개인이 역경이나 위험상황에서도 보호요인에 의하여 탄력적으로 적응해 가는 개인의 능력으로써 위험상황과는 무관하게 개인이 속한 문화속에서 기대되는 과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적응과는 구별된다(전학열, 2011; Buehler & Gerard, 2013). 결국 적응유연성은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적응상태를 보이는 능력이고 스트레스 상황속에서도 높은 성취를 나타내는 능력이며 자신이 처한 부정적인 환경에서도 좌절보다는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도전적인 자세로 극복해 나가는 탄력적인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유형식, 한상철, 2014).

이외에도 적응유연성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정의되는데 Kashubeck과

Christensen(1992)는 스트레스적 상황에서도 자신의 긍정적 기능을 이끌어내는 반응(최태은, 2007)이라 하였고, 조규필(2005)은 부정적인 외부 환경으로부터 겪는 심리사회적 상황임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정상적인 원래의 위치로 회복하는 개인의 능력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변화해가는 속성이라 정의한다.

적응유연성이 높은 아동은 스트레스를 인내하거나 받아들이든지 또는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대처하는데 양육자 또는 보호자에게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자신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은 회피하기도 한다. 이들은 자신에게 맞는 환경을 구축해나가며 적극적으로 상황해결을 위해 대처하려 하고 뚜렷한 목표의식과 희망을 그려나가며 낙관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본다고 한다(장덕희, 2001).

해외 장기 종단 연구들은 위험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 모두가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들 중 일부는 이러한 위험 환경을 극복하면서 성공적으로 적응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최태은, 2007).

따라서, 적응유연성에 대한 연구는 위험요인속의 아동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 문제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니며 이를 극복하여 정상적으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보편적인 문제 중심적 접근에서 벗어나 아동의 강점을 발견하면서 사후 처리로 인한 사회적비용 손실을 감수하는 것보다 예방적 차원의 시각으로 접근해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나. 학교적응유연성의 개념

우리나라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서는 취학의무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은 만7세가 되면 남녀를 불문하고 초등학교를 입학하여 졸업할 때까지 다녀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학교는 취학 연령기 전 가정에서 가족구성원으로 생활하다 또래관계를 맺으며 각 자의 역할이 생기고 교사로부터 지·덕·체를 학습하며 건전하게 성장하는 장소이다.

하지만 가정의 경제적 빈곤, 부모의 이혼, 가정폭력, 부모의 비정상적 양육 등의 위험요인으로 인해 부정적 요소를 학습해 실행하는 아동은 학교에서 그 행위를 나타냄으로서 또래관계나 학업성적, 규칙준수 등 학교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부적응적 양상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는 심리불안, 결석, 학교생활의 기피, 또래와의 정상적인 관계의 거부, 학업성취방해, 학교폭력 등의 부정적 요소로 이어져 문제를 야기한다고 한다(박경아, 2002).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모로부터 학대경험 횟수가 많을수록 학교폭력 등에 위이고(이신옥, 2003), 가정에서의 폭력경험이 높은 아동일수록 폭력행동 또한 높아지며 학교에 부적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경록, 2004).

그러나 이러한 위험요인 속에서의 성장을 경험했거나 현재 하고 있다고 해도 모두가 부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고, 학교생활에 비교적 잘 적응하는 아동들이 있음에도 이 분야의 선행연구는 아동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성장한 일반 아동과 비정상적인 환경을 습득한 위험 속 아동과 비교를 통한 부적응을 다루고 있는데, 이런 식의 연구로는 적응상의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한다(이희영, 이미연, 2006).

청소년 발달 관련 연구(Compas, Hinden & Gerhardt, 1995)에 의하면 발달과 적응에 있어서의 개인의 차이는 부정적 발달 경로의 위험 요소와 부

정적 경로로부터 보호해주는 보호요소에 의해 좌우된다고 한다. 위험요인은 부적응적 발달 결과를 낳는 개인이나 환경적인 특성이고, 보호요인은 열악한 환경의 조건이지만 부정적 결과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거나 개인적인 유능함을 발전시키는 요인이다(Compas et al., 1995). 이는 크게 개인과 가족, 사회 요인으로 구분하는데 이러한 보호요인으로 인해 위험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적응하는 속성을 적응유연성이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학업성취가 높고 학교에 대한 동기가 높으며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속성을 학교적응유연성이라 한다(Hernandez, 1993).

그 동안의 적응유연성 관련 연구는 학교의 중퇴경험(양국선, 2001), 빈곤(송지연, 2013), 결손가정(조수연, 2012) 등의 상황과 관련하여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가정폭력 경험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적응유연성을 연구한 경우는 찾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을 대상으로 개인과 가족, 사회환경적 지지라는 보호요인이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3. 가정폭력 경험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의 보호요인

아동 개인적인 적응유연성을 도와주는 요인들은 단일한 수준에서 작용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과 가족, 사회적 환경 등의 요인들이 체계적 수준에서 작용한다고 한다(김정희, 2007).

Coo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활동적이고 적극적이며 타인이 자신을 비판함에도 크게 당황스러워하지 않고 파괴적이지 않다고 한다. 반대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은 자신에 대한 반대의 공포 때문에 늘 움츠려있고 집단에 참가하는데 절망적이며 억압되어 있고 스스로의 능

력에 대해 회의적이며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지 않으려 하며 비판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대하며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진다(어옥자, 2003). 하지만, 이러한 고위험요인이라는 가정폭력 환경 속에서도 사회적 탄력성을 가지게 하는 가족의지지, 또래간의 친근한 사회적 특성 또는 다른 성인의 지지라는 보호요인은 정상적 생활적응유연성에 효과를 나타냈다(이상준, 2006).

홍봄내(2006)는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이 학교에서의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교사 지지, 민주적 학교분위기가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장진아(2006)는 부부갈등이 자녀의 학교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를 들었다. Jones(2004)는 신체학대를 받은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다른 성인의 지지와 가족, 학교환경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김난영, 2008).

가정폭력 뿐 아니라 가정의 빈곤, 부모의 이혼, 비행, 결손가정, 학교중퇴 등의 위험상황과 관련된 보호요인으로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의 높고 낮음, 부모의 애착관계, 친구의 지지와 또래관계, 자아존중감, 민주적 학교 분위기, 가족의 지지 등이 있었다(이미연, 2006; 김정희, 2007; 최경아, 2007; 황미선, 2010).

가정폭력과 관련된 보호요인으로서는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가족과 다른 성인의지지, 종교, 부모와의 관계, 거주환경, 낙관성 등이 있다(정인숙, 2003; 장진아, 2006; 장덕희, 2010; 김설화, 2012).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정폭력 경험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개인, 가족,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보고 개인적 요인을 자기효능감, 가족 환경적 요인을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사회 환경적 요인을 교사의 지지로 채택하였다.

가. 보호요인

유성경(2001)에 의하면 적응유연성의 개념을 정의할 때 중요한 조건이 스트레스적 상황과 이러한 스트레스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유능감이라고 하였다. 즉, 스트레스적 상황을 위험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고, 이러한 스트레스적 상황임에도 유능감을 보이는 적응 특성을 보호요인의 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보호요인을 정의함에 있어 위험요인이 부재하거나 위험요인의 반대양상이 보호요인이 아님은 중요한 것인데, Jessor(1991)에 의하면 보호요인은 긍정적인 발달이나 행동을 적극 증진하는 기능을 하므로 위험요인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위험요인을 전제로 가시화 된다고 하였다(박국중, 2007, 재인용).

적응의 개념을 위험요인 여부와 무관한 중립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적응유연성의 개념은 위험이나 역경을 필수적으로 보호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김현경, 2003).

나. 자기효능감

Bandura(1977, 1981, 1986)는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특정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을 성공적으로 행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하는데 특정 상황 속에서의 자신이 가지는 생각으로서 구체적 상황 속에서의 자신감을 말하며 특정 과제 수행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의 강도를 의미하는 자신감과 구별되는데 자기효능감은 자신감 뿐 아니라 인지 능력의 구체적 수준까지 의미한다.

Schunk(1984)는 자기효능감을 애매하고 예상할 수 없는, 때로는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으로서 긴장된 위기속에서도 행동을 잘 조작하고 이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였고, Wood, Mento & Locke(1987)는 자기효능감을 자신이 가지는 전체적인 수행능력에 대한 믿음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특정 행동을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라고 하였으며, Kranfer & Hagerman(1981)는 자기효능감을 목표달성에 필요한 활동을 만들어내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지적 판단으로, Gallathy와 Meyer(1992)는 자기효능감을 자신의 능력에 관한 일반적인 신념이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국내 연구에서도 김남성(1985), 허경철(1991), 김의철과 박영신(2001), 김아영(1998), 이현민(1998)에 의해 자기효능감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는데 결국 자기효능감이란 모호하고 예측 불가능한 스트레스적 상황속에서 개인이 스스로의 행동을 잘 조절하고 수행에 옮길 수 있다는 개인이 가지는 인지적인 판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박은영, 1999).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에 대해 직·간접적 성공과 실패의 경험으로 인한 자신이 가진 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성공적인 경험이 반복됨으로 인해 높은 자기효능감이 형성되면 실패를 경험해도 부정적 효과를 줄일 수 있다는 성취경험(performance accomplish), 타인의 성공 경험을 통해 자신도 할 수 있다는 효능감을 갖게 되는 대리경험(vicarious experience), 제안과 칭찬, 격려를 통한 기대감 상승을 유도하는 언어적 설득(verbal persuasion), 불안과 부담, 억압적 상황에서 느끼는 정서적 각성(emotional arousal)이라는 4가지 정보원에 의해 형성되고 변화해간다고 한다(이지선, 2010).

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은 행동이나 정서분야 등에서 광범위하게 입증되었는데, 박은영(2000)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행동과 환경 선택에 영

향을 주며, 지식과 기능 획득 동기를 증가시키는 내재적 동기원으로 작용하며, 미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사고유형과 정서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 해외 선행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은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나 악영향을 중재해 준다고 한다(손민옥, 2004).

아동은 가족구성원으로서 가정에서 생활하며 기본적인 인성과 환경적응을 위한 학습을 최초로 경험하게 되고 취학연령이 되면 학교를 입학하게 되는데 학교는 가정에서 벗어나 경험하는 최초 사회 경험의 장이며 교사와 또래의 친구는 가족구성원 다음으로 아동 발달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다.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적응력이 높은 아동들의 부모는 깊은 배려심을 가지고 있고 애정적이며 공감력이 있고 안정감이 있어 주변에 그들이 가지는 가치를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김설화, 2012).

선행연구에서도 적응력이 높은 아동들의 가족환경은 따뜻하고 애정적이며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지라는 특성을 가지면서 가족구조 아동의 스트레스 회복 능력은 많은 부분에서 환경적인 지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기서 가족의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아동은 가정에서 가족구성원의 지지와 관계를 통해 지식, 경험, 배려 등을 익혀가며 성장해 가는데 부모와 형제로 구성된 가족은 긍정과 수용, 안정을 느끼게 함으로써 아동의 긍정적 발달을 촉진시킨다(진혜민, 2007).

김연희(2005)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아동의 내재화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낮았고, 남동현(2010)은 부모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아동은 자아존중감을 발달시키고, 홍연란(2009)은 부모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아동은 자기효능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 부모의 의사소통 방식과 더불어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신희건, 유일영, 오의금, 2010).

이상준(2006)은 청소년의 다각적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을, 김연정(2004), 손운용과 곽수란(2006), 최태은(2007)도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을 포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이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라. 교사의 지지

가정 내 폭력적 환경속에서 성장한 아동들은 대부분이 정서, 행동,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이 있고(장덕희, 2010),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학대를 경험하는 것과 같다(박형원, 2004; 김재엽, 2008)고 한다. 이외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부모간에 행해지는 폭력상황을 목격한 자녀들이 그런 상황을 목격하지 않은 그들 보다 우울증상, 불안심리 같은 문제를 나타내는 경우가 더 많았고, 김형모(2007)는 아동학대가 부모 간 폭력 노출보다 청소년의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학령기 아동에게 있어 학교는 가정만큼 시간을 많이 보내는 장소로서 교사는 학생에 있어 부모 다음으로 가장 관계가 깊은 존재이다.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들은 교사를 통해 성장과정에서의 사회적 기술, 인성 등을 습득하면서 성장한다. 교사의 지지가 높고 정서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아동의 공격행동은 적어지며 최태은(2007), 김난영(2008), 김설화(2012)의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경험 아동의 적응력을 높여주는 요인으로서 교사의 지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긍정적 발달을 도와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아동들에게 있어서 교사는 아동이 새로운 환경을 탐색하고 학문과 사회적 요구에 대처하는 기술을 습득해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Pianta & Steinberg, 1992) 아동에게 심리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김남희, 2011).

안영은과 양성관(2015)의 연구에서는 교사의 지지는 학생에 대해 정서, 정보, 물질, 평가적 지지를 포함하는 모든 행위로서 정의했으며, 윤연진(2012)의 연구에서는 교사의 지지는 아동의 지적 성숙과 정서, 사회적 적응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교사와 또래는 가족 구성원 다음으로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소속 집단을 구성하는데 청소년기에 이르면 학교에서의 성공적인 적응은 가정 못지않게 중요해 가정의 부정적 양육으로 인한 취약성을 보상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설화, 2012).

따라서 일상의 절반 이상을 보내는 학교에서는 가정내에서 부모의 역할을 하는 교사의 지지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에 설치되어 있는 공동생활가정, 청소년 쉼터 중 가정폭력경험 아동, 가정폭력 개입 기관의 사례관리 가정의 아동으로 아동 복지법상의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아동의 부모 또는 시설장의 동의를 구하고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총 201부를 배부하여 160부를 회수하였고 이 중 불성실한 응답 대상을 제외한 115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공동생활가정과 초등학생의 경우 본 연구자가 직접 1:1 대면과 각 기관의 사회복지사들에 협조를 구해 자료를 수집했다.

연구대상 아동의 일반적 경향성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일반적 배경을 살펴본 결과 총 115명 중 남아가 53%(N=61), 여아가 47%(N=54)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57.4%(N=66),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24.3%(N=28),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18.3%(N=21)로 가정폭력을 경험한 학생중 초등학생이 과반수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 아동의 일반적 경향성

성 \ 학교급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계(%)
남학생	30	16	15	61
여학생	36	12	6	54
계	66	28	21	115(100%)

2. 연구도구

가. 자기효능감

아동의 자기효능감은 Sherer, Maddux, Mercandante, Prentice-Dune과 Jacobs(1982)가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홍혜영(1995)이 번안하고 김복환(2003)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사회적 자기효능감(socialself-efficacy)과 일반적 자기효능감(generalself- efficacy)의 두 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대인관계에서 사회적 기술과 관련이 있는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문항의 구성은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재는 6문항,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재는 17문항, 총 23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5점의 리커트 방식이다.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즉시 시작하기 어렵다’를 비롯한 몇 개의 부정적 진술 문항은 역점수로 환산하였다. 본 검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아

래 표 2와 같이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88,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68로 나타났다.

〈표 2〉 자기효능감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하위요인	관련문항	신뢰도 계수
일반적 자기효능감	1, 2 *, 3, 5 *, 6 *, 8 *, 9 *, 11, 12, 13 *, 15 *, 16 *, 17, 19 *, 20, 22 *, 23 *	.84
사회적 자기효능감	4 *, 7, 10 *, 14, 18 *, 21	.64

* 역채점 문항

나.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Barnes과 Olson(1982)이 개발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PAC) 도구를 김윤희(1989)가 번안한 청소년 자녀용 질문지 중에서 개방형 의사소통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원척도는 5점 척도이지만 김윤희(1989)는 중앙집중경향의 오류를 배제하기 위해 4점 리커트 척도로 사용하였으며, 부모님과 대화할 때 ‘나의 소신을 거리낌 없이 의논할 수 있다’, ‘늘 내 말을 귀담아 주신다’ 등의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긍정적이고 개방적임을 의미한다. 본 조사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alpha=.94$ 로 나타났다.

다. 교사의 지지

교사의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김의철과 박영신(1999)이 제작한 사회적 지지 질문지 가운데 교사지지 문항만을 교사지지 척도로 사용하였다. 정서적 지지 6문항과 정보적 지지 6문항으로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정서적 지지’는 교사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일방적인 격려, 이해, 관심 등을 측정하는 것이고(예, “내 마음을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정보적 지지’는 교사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학교생활, 학업, 바른 태도 등에 관한 조언 등을 측정한다 (예,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 5점 Likert형 척도 (1=전혀 아니다, 2=약간 아니다, 3=보통이다, 4=약간 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는데, 값이 클수록 지원을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한다.

김남희(2011)에 따르면 중학생 664명을 대상으로 교사의지지 척도의 전체 문항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95로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본 연구 표집을 대상으로 한 교사의지지 전체 문항 내적합치도는 .94이었고, 정서적지지 문항 내적합치도는 .94, 정보적지지 문항 내적합치도는 .89로 나타났다. 본 척도의 하위요인 구성과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계수는 표 3과 같다.

<표 3> 교사지지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정서적지지	6	1,2,3,4,5,6	.94
정보적지지	6	7,8,9,10,11,12	.89
전체	12		.94

라. 학교적응유연성

Hernandez가 사용한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설문조사(SchoolInterest Questionnaire)와 담임교사와의 관계, 교우관계, 학습활동, 규칙준수, 학교 행사 참여로 구성된 학교생활 적응척도(민병수,1991)를 박현선(1998)이 수정·보완하여 만든 학교적응유연성 검사를 사용하였다.

학교적응유연성은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학업 및 성적에 대한 태도, 학교 규범 준수 등의 3개 하위차원으로 구성된 총 2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관련이 적은 1문항(학교에서 근신, 정학 등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을 제외한 총 21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채점 방식은 단순 누가식으로 총합을 사용하되, 학교규범 준수를 비롯한 몇 개의 부정적 진술 문항은 역점수로 환산하였다. 이 척도에서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 유연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검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4이었다. 하위항목으로 학교흥미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6, 규범준수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3, 성취태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63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아동의 일반적 배경(성별, 학교)에 따른 학교 적응유연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고, 일원변량분석

의 경우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가정폭력 경험 아동의 자기효능감, 부모와 자녀의 개방적 의사소통, 교사지지가 학교적응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가정폭력 경험 아동의 성별과 학교급이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두 변을 더미변수로 변환한 후, 성별과 학교급을 통제하여 위계적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는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에 있어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학교 적응유연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들 아동들의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이 무엇이고 어떠한지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에 따른 통계적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경험 아동의 일반적 배경(성별, 학교급)에 따른 학교적응유연성의 차이

가. 가정폭력경험 아동의 성별에 따른 학교적응유연성의 차이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가정폭력경험 아동의 성별에 따라 학교 적응유연성을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교적응유연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4.03$, $p<.001$). 따라서 가정폭력 경험 아동은 성별에 따라서 유의미하게 학교 적응유연성에서 차이가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 가정폭력경험 아동의 성별에 따른 학교적응유연성의 차이(N=115)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성별	남아	61	2.71	.54	-4.03***
	여아	54	3.07	.40	

*** $p<.001$

나. 가정폭력경험 아동의 학교급에 따른 학교적응유연성의 차이

가정폭력경험 아동의 학교 적응유연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F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가정폭력경험 아동의 학교급에 따른 학교적응유연성의 차이(N=115)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학교	초등학교	66(a)	3.01	.42	5.68**	a>b,c
	중학교	28(b)	2.70	.63		
	고등학교	21(c)	2.69	.51		

** $p<.01$

위의 표 5와 같이 학교급에 따른 가정폭력경험 아동의 학교 적응유연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F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교(학급)에 따른 학교 적응유연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F=5.68$, $p<.001$). 이러한 각 학교 변인들의 따른 차이는 어디에서 연유하는지를 알

아보기 위해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초등학생이 중학생, 고등학생에 비해 학교적응유연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학교 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정폭력경험 아동의 자기효능감,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교사의 지지가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가. 가정폭력경험 아동의 자기효능감,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교사의 지지, 학교적응유연성의 일반적 경향성

가정폭력경험 아동의 자기효능감,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교사의 지지, 학교적응 유연성의 일반적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가정폭력경험 아동의 자기효능감,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교사지지의 일반적 경향성(N=115)

변 인	구 분	평균(M)	표준편차(SD)
자기효능감	일반적 자기효능감	3.18	.61
	사회적 자기효능감	3.15	.75
	전체	3.17	.56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3.03	1.18
교사의 지지	정서적지지	3.87	.94
	정보적지지	3.89	.98
	전체	3.88	.89
학교적응유연성		2.88	.51

가정폭력경험 아동의 자기효능감의 전체 평균은 3.17(SD=.59),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3.18(SD=.61),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3.15(SD=.75)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의 평균은 3.03(SD=1.18)로 나타났으며 교사의 지지의 전체 평균은 3.88(SD=.89), 정서적 지지는 3.87(SD=.94), 정보적 지지의 평균은 3.89(SD=.98)로 나타났으며 학교적응유연성의 평균은 2.88(SD=.51)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가정폭력경험 아동의 성별, 학교급, 자기효능감,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교사의 지지, 학교적응유연성간의 관계

가정폭력 경험아동의 성별, 학교급, 자기효능감,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교사의 지지, 학교적응유연성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가정폭력경험 아동의 성별, 학교급, 자기효능감,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교사의 지지, 학교적응유연성 간의 상관관계(N=115)

구 분	성별 (여아)	학교 (중학교)	학교 (고등학교)	자기 효능감	부모- 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교사의 지지	학교적응 유연성
성별 (여아)	1						
학교 (중학교)	-.05	1					
학교 (고등학교)	-.13	-.27**	1				
자기 효능감	.25**	-.13	-.15	1			
부모- 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21*	-.11	.04	.40**	1		
교사의 지지	.10	-.28**	-.21*	.45**	.22*	1	
학교적응 유연성	.36**	-.20*	-.17	.49**	.45**	.51**	1

** $p < .01$

가정폭력 경험아동의 성별, 학교, 자기효능감,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교사의 지지, 학교적응성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정폭력경험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은 교사의 지지와 가장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내었으며($r=.51$ $p<.01$), 다음으로 자기효능감($r=.49$ $p<.01$),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r=.45$ $p<.01$), 성별($r=.36$ $p<.01$), 학교($r=-.20$ $p<.05$)의 순으로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가정폭력경험 아동의 자기효능감, 부모-자녀간 개방적 의사소통 및 교사의 지지가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가정폭력 경험아동의 자기효능감,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교사의 지지가 학교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위하여 더미통제 회귀분석(위계적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Durbin-Watson 값을 확인한 결과 모두 2에 가까운 값으로 나타나 잔차의 독립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VIF 값이 1에 가까운 값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 8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가정폭력경험 아동의 성별과 학교급이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후, 자기효능감,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및 교사의 지지가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기효능감,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및 교사의 지지가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설명력은 27%로 유의미하였다. 또 회귀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증도 양호한 것($F=15.57, p<.001$)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변인 중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B=.12, t=3.35, p<.01$)과 교사의 지지($B=.19, t=3.82, p<.001$)는 학교적응유연성과 정적 예측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효능감($B=.15, t=1.89, p>.05$)은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과 교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가정폭력경험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 8> 가정폭력경험 아동의 자기효능감,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교사의 지지가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N=115)

독립변수	학교적응유연성							
	모형1				모형2			
	<i>B</i>	<i>β</i>	<i>t</i>	<i>VIF</i>	<i>B</i>	<i>β</i>	<i>t</i>	<i>VIF</i>
상수	2.84				1.27			
성별(여자)	.33	.32	3.70***	1.02	.22	.22	2.91**	1.10
학교급(중학교)	-.28	-.23	-2.61*	1.09	-.08	-.07	-.87	1.24
학교급(고등학교)	-.26	-.19	-2.15*	1.10	-.11	-.08	-1.02	1.23
자기효능감					.15	.16	1.89	1.48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12	.26	3.35**	1.24
교사의 지지					.19	.32	3.82***	1.44
R ²	19				46			
ad R ²	17				43			
R ² 의 변화량	19				27			
F(p)	8.77***				15.57***			
Durbin-Watson 2.20								

*** $p < .001$, ** $p < .01$ * $p < .05$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의 자기효능감,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교사의 지지가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아래와 같다.

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에 대한 아동의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

가정폭력경험 아동의 성별과 학교급이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결과, 먼저, 여아의 학교적응유연성이 남아의 학교적응유연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대와 같은 스트레스적 요인에 대해서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지지 추구적인 대처행동을 더 많이 취한다는 최일(2007)의 연구결과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교사와의 관계가 좋고 학교규칙을 잘 지킨다는 서진영(2005), 이경(2004)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로부터 신체적 학대나 방임을 겪는 빈도가 높고, 가정폭력의 스트레스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소극적으로 대처(최일, 2007)하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가정폭력 경험으로 인한 공격성이 강하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아탄력성이 높다는(LI MINGJI, 2017) 연구결과와 연관될 수 있다.

성별과 관련된 해외 연구에서 Rutter(1999)는 아동의 성별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완정(2002)의 연구에서처럼 남아가 여아보다 주변의 스트레스적 상황에 더 취약했으며,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사회적 지지로 인해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여아가 남아에 비해 높다는 좌문경(2009)의 연구나, 위험요인속에서도 탄력성을 나타내는 집단에 여아가 남아보다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연구(이용준, 2004)도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윤상희(2018)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공격성을 연구한 결과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공격적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행동적공격성과 적대감이 남아가 여아에 비해 높다는 것으로, 환경적인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 아동이라면 규칙준수와 통제가 따르는 학교에서의 생활에서도 이러한 위험요인의 영향을 받아 적응유연성이 여아보다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다. 또, 김은아와 이승연(2011)의 연구에서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공감능력 수준이 높다고 하였는데, 한새미(2015)의 또래 괴롭힘과 관련된 아동의 성별 공감차이에 대한 연구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자기방어적 태도를 더 많이 취하고 주변의 일에 더 무관심하다는 결과처럼, 가정폭력이라는 고위험환경에서도 여아가 남아보다 폭력이나 따돌림 등의 상황에 무관심하고 아동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 더욱 방어적인데서 학교적응유연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이외에도 결손가정이라는 위험요인속에서 양육되고 있음에도 여아가 남아보다 학교생활 적응유연성이 높다는 선행연구는(이화정, 2002) 가정 내에서 폭력이라는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학교적응유연성에 있어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본 연구와 일치하는데, 결과적으로 많은 선행연구의 결과에서처럼 여아가 남아보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나 또래와의 공감능력, 규칙준수, 위험요인에 대한 무관심의 수준이 높음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일상생활에서 위험환경을 가진 아동의 적응유연성과

성별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설명한 백승영(2013), 이상준(2006), 정인숙(2003)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정서적인 불안을 가진 아동들의 생활상의 적응에 성별에서 차이가 없다고 한 백승영(2013)의 연구에서는 그 대상이 일반적인 정서 불안을 가진 아동들인 면에서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정서적인 안정을 가지지 못한 본 연구의 대상과 유사하지만 직·간접적인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온 본 연구의 대상과는 차이가 있다. 또 이상준(2006)의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을 경험하였고 학교에 재학중이지만, 기관의 사례관리를 받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본 연구 대상과는 차이가 있었고, 정인숙(2003)의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와 유사한 대상이지만 그 대상의 연령이 어리고 양육자와의 일상생활상의 적응에 대한 연구 결과이므로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다음으로,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이 아동이 재학중인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보호요인에 의해 학교적응유연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학년이 낮을수록 학교적응유연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이상준(2006)의 연구결과나,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연구(김승경, 강문희, 2005)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사회규범이나 부모의 권위를 수용하면서 사회규칙에 순응적이라고 하는 Piaget의 도덕성 이론과 연관지을 수 있는데, 연령이 어릴수록 사회규범은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며 이를 무조건적으로 지키지만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규칙은 상대적이며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고 인식한다고(김용주, 2010)하는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은 청소년기의 초기 단계로서 2차 성장과 같은 신체적 변화는 물론 주변을 보는데 있어 정서적으로 불안정을 나타내는 중·고등학생의 시기보다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을 지지해주는 요인에 의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소년에 해당하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이전의 아동기에 비해 신체와 정신의 불안정으로 인해 자살이나, 우울, 자기멸시 같은 느낌을 훨씬 많이 받는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Reynolds & Johnston, 1994), 이와 관련해 가치관과 정서적인 혼란을 가져오는 청소년기에 가정폭력이라는 위험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자신을 통제하는 요인들에 대해 반항을 하고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따라서 또래와의 관계형성 범위가 넓어지는 청소년기는 충동적이고 많은 사건을 겪게 되므로 교사와의 충돌이 있고 학교규범 준수에서의 반항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청소년기 이전의 아동이 청소년보다 학교적응유연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의 학교급별에 따라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부터 시작되는 청소년기의 시작이 고등학생 시기까지 이어지면서 청소년기만의 특징이 유사하므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나. 가정폭력경험 아동의 자기효능감,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교사의 지지가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은 자기효능감,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교사의 지지 중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과 교사의 지지에 의해 가장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주(2006)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위험요인을 극복하는데 있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했으며, Perkins와 Jones(2004)는 학대 경험 청소년들이 음주, 흡연 등의 일탈행위를 함에 있어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이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했고, 이상준(2006)의 연구에서도 가정폭력경험 아동의 가족 차원의 보호요인으로서 가족응집성과 함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부모와의 의사소통 보호요인은 가정폭력 뿐 아니라 빈곤(진혜민, 2007; 고근중, 2006)이라는 위험요인을 극복하는데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나타났다. 다시 말해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은 가정폭력 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 있는 위험요인을 극복하게 해주는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은 같은 피해자인 어머니로부터 지지를 받을 경우 생활상의 적응유연성을 나타낸다는 결과로 볼 수 있다(Holden & Ritchie, 1991, 정인숙, 2003).

고미선(2004)의 연구에서는 학대경험의 아동은 성인기에 이르러 가정을 이루더라도 부부 또는 자녀에 대한 폭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즉, 폭력도 학습화 되어 외부로 표출된다는 것으로서 이를 반대로 해석해보면 아동기에 부모와의 소통이 건강하게 이루어진다면 성인기에 이르러서도 건전한 부부관계를 비롯해 건강한 가족구조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과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에서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사의 지지가 있다. 교사의 지지는 본 연구에서뿐 아니라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꾸준히 설명되었다. 박현선(1998)의 연구에 의하면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에 있어 민주적 학교분위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으

로 밝혀져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 학교에서의 부적응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한 양국선(2001)의 연구에서도 연구 대상자들에 있어 중요한 여러 보호요인 중 교사의 지지가 가장 영향력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정인숙(2003)의 연구에서도 아동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유연성을 나타내는 보호요인으로 교사의 지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에게 있어 학교는 가정을 벗어나 사회관계망이 이전 단계보다 확대되는 중요한 장소이다. 즉, 교사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사는 부모의 대리역할을 하는 존재로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되는데 필요한 지식, 인성, 가치관 등의 요소를 형성시킨다. (윤혜정, 1993).

진혜민(2007)의 연구에서는 빈곤이라는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 아동에 있어 교사의 지지가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즉, 성장기의 아동은 새로운 환경에서도 지지요인이 있음으로 인해 현재의 상황에 적응유연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학교에서의 따돌림 피해 아동이 교사와의 상호작용에 만족도가 높다는 박선정(2014)의 연구나, 다문화가정이라는 특수한 조건을 가진 아동들이 낯선 환경속에서도 학교적응유연성을 나타내는 데는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조혜영(2009)의 연구를 보면 교사의 지지는 아동이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위험요인을 안고 있다 하더라도 아동의 전반적인 생활상의 적응유연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유효현(2000)의 연구결과와 이혼가정이라는 환경속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아동은 자기효능감이 낮은 아동보다 내면적 문제가 낮게 나타났다는 김지

영(2002)의 결과와는 다르다. 하지만 성금옥(2007)과 박미선(2005)의 연구 결과에서처럼 가정 내 폭력과 폭언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자기효능감이 낮아지고,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은 정신건강이 낮아지면서 낮아진 정신건강이 자기효능감을 떨어뜨린다는 결과를 볼 때, 본 연구 대상자는 사법기관이나 다른 개입기관으로부터 개입을 받을 정도의 심각한 상황에 놓인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기효능감은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었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와 관련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본 연구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이 가능할 것 같다.

첫째,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은 성별과 학교급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초등학생이 중학생과 고등학생보다 학교적응유연성이 높았다.

둘째,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에게 있어 자기효능감,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교사의 지지가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자기효능감을 제외한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과 교사의 지지가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준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설문조사라는 양적 연구방법을 통해 가정폭력경험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을 살펴보았다. 이 방법으로는 가정폭력 노출 아동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자료를 얻는 데 한계가 있었다. 양적 연구와 함께 질적 연구가 병행된다면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가정폭력경험 아동이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된 보호요인을 살펴보고 그 요인들과 학교적응유연성과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경험했거나 현재 경험중인 아동들이 어떤 이유와 경로로 이러한 적응유연성을 나타내는지 경로분석과 함께 종단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한 보호요인 외 다른 요인들도 많으나 일부로 제한하였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많은 대상을 표집하고 이들의 성장과정, 기질적 요인, 가족 및 사회 환경을 고려해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고위험 환경에서의 학교적응유연성을 이해하는데 더욱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넷째, 본 연구는 18세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했다. 연구 대상자들의 분포가 아동과 청소년으로서 그 범위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도구를 사용했다는 점에서는 신뢰성 확보에 다소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실제 현장에서 접한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된 보호요인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가정폭력경험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을 돕는 방안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문헌

- JTBC 소셜스토리, 2017: 가정폭력을 탈출한 아내, 11월 28일 방영.
- LI MINGJI(2017). 성별에 따른 초등학생의 가정폭력 경험과 공격성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강경희(2012). 장애부모를 둔 비장애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에 관한 연구, 충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고근중(2006). 저소득 가정 아동의 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 및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고미선(2004).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이 부부간의 폭력에 대한 태도와 행위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구본용(2005). 위기청소년 지원모델 개발 연구, 지역사회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79-80.
- 김경록(2004). 청소년의 가정폭력경험과 학교폭력과의 관계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경섭(2007). 중학생의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진천지역을 중심으로, 침례신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난영(2008).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의 조절효과.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남성(1985). 교육심리학, 서울: 교육과학사.
- 김남희(2011). 기본심리욕구와 수업참여를 매개로 한 학생-교사야착관계와 학업성취간 관계: 교사지지와 학생-교사에착관계의 의미와 역할의 차이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미선(2009). 빈곤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민강(2009). 이혼가정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된 보호요인 탐색, 부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설화(2012).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의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군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승경·강문희(2005). 이혼가정 아동의 탄력성에 대한 위험-보호요인들 간의 경로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아영(1998). 초등학교 아동의 목표지향성과 자기조절학습전략 사용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27, 71-88.
- 김양희(2009). 푸드아트테라피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및 자기효능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목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연정(2004). 가출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연희(2005).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영희·민병기(1999). 초등학생의 생활만족도 형성요인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5(1), 57-76.
- 김용주(2010).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청소년기 자녀의 정서지능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2), 77-87.
- 김윤희(1989).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욕구좌절 상황에서의 아동행동 특성과의 관계,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윤희(1989).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과 욕구좌절 상황에서의 아동행동 특성과의 관계,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의철·박영신(2001). IMF 시대 한국학생과 부모의 스트레스와 대처양식 및

-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77-105.
- 김정란(2003). 자녀의 가정폭력 노출과 행동문제: 자녀학대 피해와 아내학대 목적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3), 67-88
- 김재엽(2003).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의 문제와 개입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5, 27-54.
- 김재엽(2008). 가족기능이 청소년의 폭력비행에 미치는 영향과 인터넷 게임중독의 매개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정옥·박경규(2002). **결혼과 가족**. 서울: 신정.
- 김정희(2007). 부모의 알콜중독과 대학생 자녀의 대학생활 적응-부모와의 애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1(21), 103-138.
- 김지영(2002). **결손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우울, 불안, 자기 개념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현경(2003). **결손가정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된 보호요인**,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형모(2007). 부부폭력 목격과 아동학대 경험이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과 권리**, 11(1), 31-60.
- 남동현(2010). **참여권에 대한 아동의 인식과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 및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경아(2002). **학교폭력 피해자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계림(2013). **청소년쉼터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국중(2007). **한부모가정 초등학생의 적응유연성과 관련된 개인적 측면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미선(2005). **청소년이 지각한 가정폭력 수준과 정신건강, 자기효능감과**

의 관계, 공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박선정(2014). 집단 따돌림 피해 아동의 피해경험과 학교생활만족의 관계에서 적응유연성의 조절효과,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박은영(1999). 자기성장 집단상담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및 취업면접 태도에 미치는 효과, 창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박현선(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여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박형원(2004). 가정폭력 노출 아동의 공격행동감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백승영(2013). 다문화가정 아동의 정서,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1(2), 159-161.

서진영(2005). 아동의 학대경험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일장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성금옥(2007). 기독교 가정의 가족갈등 처리방식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성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소옥현(2006).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이 아동의 심리적복지에 미치는 영향, 남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손민옥(2004). 교사의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가 불안과 신체증상 지각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손운용·곽수란(2006).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체계 요인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18(3), 107-129.

송정아(2003). 가정폭력치유 프로그램, 서울: 신정.

송지연(2013). 빈곤아동의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신희건·유일영·오의금(2010), 학령기 아동의 삶의 질과 아동이 인지한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와 의사소통과의 관계, 아동간호학회, 16(3),

220-229.

안영은·양성관(2015). 학교유형이 교사사기 및 열의, 교사지지, 수업참여를 매개로 삶의 질, 미래역량에 미치는 영향: 일반고와 특목고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양국선(2001). 중퇴경험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된 보호요인 특성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어옥자(2003).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수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엄명용(2001). 가정폭력 피해가정 대상의 사례관리제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사회복지정책, 12, p.22.

유난영(2008). 빈곤지역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위험·보호요인과 임파워먼트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유성경(2002). 적응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 교육심리연구, 16(4), 189-206.

유정원(2006). 학대경험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유현옥(2010). 위기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유형식·한상철(2014). 군인청소년의 적응유연성이 대인관계와 진로계획에 미치는 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12(2), 67-87.

유효현(2002). 자기효능감과 학습동기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분석,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윤상희(2018). 아동의 성별 및 기질과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윤연진(2012). 초등학생의 진로인식에 대한 학생 자아개념의 영향과 교사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윤혜정(1993).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회관계망지지 지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 경(2004).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행동 및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상준(2006).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의 탄력성과 보호요인.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승연(2011). 초등학생의 공격성과 사회적 선호도, 지각된 인기도의 관계: 친사회적 행동과 사회적 유능성의 조절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8(2), 153-173.
- 이신옥(2003). 가정폭력경험 청소년의 학교폭력과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완정(2002). 발달과정에서 위험요소에 노출된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과 보호요인 분석, 아동학회지, 23(1), 1-16.
- 이용준(2004). 탄력적인 아동의 보호요인 연구: 아동의 성과 지능,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윤주(2009). 가족지지,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친밀감이 중고등학생의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21(3), 57-71.
- 이재상(2017). 형법총론, 박영사.
- 이지선(2010). 자기효능감이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현민(1998).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 아동의 자기조절

- 능력과 정서지능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혜진(2002).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사회적문제 해결 능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화정(2002). 가족형태와 아동의 성별에 따른 비합리적 신념과 학교생활 적응, 경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희영·이미연(2006). 학교폭력피해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된 보호요인 탐색, 부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인천일보, 2017, 사회면, 11월 29일 자.
- 장덕희(2001). 가정폭력경험 자녀의 적응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개입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장덕희(2010). 부부폭력 목격경험에 따른 폭력가정 자녀의 적응유연성, 청소년학연구, 17(1), 143-166.
- 장진아(2006). 부부갈등이 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부모양육태도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전귀연·배문조(2001). 가출행동 빈도에 따른 청소년의 가족특성비교, 한국가족복지학, 6(1), 107-125.
- 정은숙(2003). 기질 및 사회적지지가 아동기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을 매개변인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인숙(2003). 가정폭력경험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쉼터 및 보호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규필(2005). 청소년쉼터가 가출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청소년쉼터 개입기간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미숙·이윤로·윤혜미(1999). 가정폭력과 사회복지, 서울: 학지사

- 조은정(2004).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경험이 대인관계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통제소재를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혜영(2009).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사의 인식 연구: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12(1), 263-295.
- 좌문경(2009).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진혜민(2007). 빈곤가정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 일(2007). 초등학교 아동의 학대경험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경아(2007).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반 가정 청소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최선남(1990). 청소년의 어머니와 의사소통유형과 갈등 표출방법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종술(2005). 가정폭력 경험이 비행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위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태은(2007). 가출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새미(2015). 성별에 따른 아동의 공감능력이 또래괴롭힘에 대한 방관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허경철(1991). Bandura의 자아효능감 발달 이론과 자주성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교육월보*, 119, 51-55.
- 홍봄내(2006). 가정폭력경험평소년의 학교적응을 높이는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홍연란(2009).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학령기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간호학회*, 15(4), 392-400.
- 황희선(2006). *고등학생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과 대인관계 성향 및 인터넷중독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andura, A.(1977).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Developmental Review*, 9(4), 383-401.
- Bandura, A.(1986). Fearful expectations and avoidant actions as coefficients of perceived self-inefficacy. *American Psychologist*, 41, 1389-1391.
- Bandura, A.(1986). The explanatory and predictive scope of self-efficacy theory, *Guilford Press*, 4(3), 359.
- Barnes, H. L., & Olson, D. L.(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438-447.
- Block, H.(1980). Ego control, ego resiliency, and the five-factor model as predictors of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in clinic-referred children and Adolescen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 404-415.
- Bretherto, I., Ridgeway, .D., & Cassidy. J.(1990). Mother - and father - child attachment themes in the story completions of pre-schoolers from post-divorce families: do they predict relationships with peers and teachers?.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3, 1-29.
- Cicchetti, D.(1993). *Prospects and promises in the study of resili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mpas, B. E.(1989). Risk factors for emotional/behavioral problems in young

- adolescents: A prospective analysis of adolescent and parental stress and symptoms, *Developmental Psychology*, 25, 550-559.
- Compas, B. E., Hinden, B. R., & Gerhardt, C. A.(1995). Adolescent development: Pathways and processes of risk and resilience, *Annu Rev Psychology*, 46, 265-293.
-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 Eden, D., & Avriam, A.(1993). Self-efficacy training to speed reemployment: Helping people to help themselv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8(3), 352-360.
- Gallathy, I. R., & Meyer, J. P.(1992). The effects of goal difficulty on physiological arousal, cognition, and task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7, 694-704.
- Garnezy, N.(1980). Child in poverty: Resilience despite risk. *Psychiatry*, 56(1), 127-136.
- Gelles, R. J.(1997). *Intimate violence in families*, Sage publications, 216.
- Glaser, D.(2002). Emotional abuse and neglect(psychological maltreatment): A conceptual framework. *Child Abuse Neglect*, 26(6-7), 697-714.
- Hernandez, L. P.(1993). The academic resilience of mexic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19(3), 301-317.
- Holden, G. W., & Ritchie, K. L.(1991). Linking extreme marital discord, child rearing and child behavior problems: Evidence from batter women. *Child Development*, 62, 311-327.
- Jessor, R.(1991). Risk behavior in adolescence: A psychosoci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and action.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12(8),

597-605.

- Kashubeck, B., & Christensen, M.(1992). A model of depression in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and nonalcoholic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19*, 1556-6678.
- Kobas. M.(1982). Stress resilience, locus of control, and religion in children of holocaust victims. *The Journal of psychology, 130*, 513-525.
- Lansford, J. E.(2002). Early physical abuse and later violent delinquency: A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Child Maltreat, 12*(3), 233-245.
- Moran, P. B., & Eckenrode, J.(1992). Protectiv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mong adolescent victims of maltreatment. *Child Abuse & Neglect, 16*(5), 743-754.
- Olson, M. A.(2003). Relations Between Implicit Measures of Prejudice, *Psychological Science, 14*(6), 636-639.
- Perkins, D. F., & Jones. K. R.(2004). Risk behavior and resiliency within physically abused adolescent, *Child Abuse & Neglect, 28*, (5), 547-563.
- Pianta, R. C., & Steinberg, M.(1992).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d the process of adjusting to school, *New directions for Child Adolescent Development, 57*, 61-80.
- Reynolds, M. W., & Johnston. F. H.(1994). The Nature and Study of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Handbook of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3*-17.
- Robert, E, Wood., & Edwin A. Locke.(1987). The relation of Self-Efficacy and Grade Goals to Academic performanc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47*(4), 1013-1024.
- Romans, J. S. C.(1995). Development of the Relationship Beliefs Questionnaire, *Psychol Rep, 76*(3), 1248-1250.

- Rowe, E., & Eckenrode, J.(1999). The timing of academic difficulties among maltreated and nonmaltreated children. *Child Abuse and Neglect*, 8, 813-832.
- Rutter, M.(1985). Resilience in the Face of Adversity: Protective Factors and Resistance to Psychiatric Disorder,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7, 598-611.
- Rutter, M.(199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3), 543-562.
- Rutter, M.(1999). Risk and protection: Are both necessary to understand diverse behavioral outcomes in adolescence, *Social Work Research*, 23(3), 145-158.
- Sherer, M, James E. M., & Blaise Mercandante.(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 Vol.51, Issue 2, 663-671.
- Shonk, M., & Cicchetti, D.(2001). Maltreatment, competency deficits and risk for academic and behavioral maladjust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7(1), 3-17.
- Toth, K. R.(2002). The relative efficacy of two interventions in altering maltreated preschool children representational models: implications for attachment theory, *Dev Psychopathol*, 14(4), 877-908.
- Youngm J. E., & Klosko, J. S.(2003). Children and young people accused of child sexual abuse: A study within a community, *Journal of Sexual Aggression*, 9, 57-70.

부 록

〈설 문 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아동심리및상담 전공 석사과정에 있는 배태상입니다.

이 설문지에서는 여러분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해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하기 위해 가정에서 보고 느꼈던 것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각 질문들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느꼈던 것들을 솔직하게 쓰는 것이 정답입니다. 옆 친구와 답이 달라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질문에 해당하는 번호에 “○” 또는 직접 써주면 됩니다.

이 설문지는 오직 연구 목적에만 사용되며 각 숫자에 표기된 것을 평균값으로 처리해 통계처리 할 것이므로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따라서 각 질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솔직하게 표시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솔직한 답변 하나하나가 지금의 친구들과 앞으로의 미래에 귀중한 역할을 합니다. 설문에 답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2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아동심리및상담전공

연구자: 배 태 상

지도교수: 이 희 영

I.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문항을 읽고 해당란에 ○표 하거나 빈칸에 써주세요.

1. 성별	①남() ②여()
2. 나이	() 세
3. 현재 학년	초등학교()학년 · 중학교()학년 · 고등학교()학년



II. 여러분의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해당되는 칸에 표시(○)하세요.

	항목	전혀 그렇지않다	거의 그렇지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에 가는 것이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든다.	1	2	3	4
2	학교생활이 즐겁다.	1	2	3	4
3	내가 배우고 있는 대부분의 과목을 좋아한다.	1	2	3	4
4	담임선생님이 좋다.	1	2	3	4
5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질 때가 있다.	1	2	3	4
6	나는 우리학교 선생님들 대부분 존경한다.	1	2	3	4
7	수업시간에 나는 도움이 되는 것을 배운다고 생각한다.	1	2	3	4
8	내게 있어 학교성적은 참으로 중요하다.	1	2	3	4
9	나는 공부에는 취미가 없다.	1	2	3	4
10	나는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 편이다.	1	2	3	4
11	나는 수업 시 학습태도가 좋은 편이다.	1	2	3	4
12	나의 학교성적은 좋은 편이다.	1	2	3	4
13	숙제는 내 힘으로 꼬박꼬박 해 가는 편이다.	1	2	3	4

14	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른다.	1	2	3	4
15	나는 학교의 규칙을 잘 지켜 나간다.	1	2	3	4
16	다른 학생들과 싸우거나 다툰 적이 있다.	1	2	3	4
17	시험 볼 때 커닝을 한 적이 있다.	1	2	3	4
18	학교에 지각을 한다.	1	2	3	4
19	허락 없이 학교 가기 싫어서, 학교에 알리지도 않고 결석을 한다.	1	2	3	4
20	나는 학교 시설물을 손상시키거나 망가뜨린 적이 있다.	1	2	3	4
21	수업시간에 허락받지 않고 마음대로 내 자리를 비운 적이 있다.	1	2	3	4

Ⅲ. 아래 문장을 읽어 가면서 여러분이 자신과 같다고 생각되는 정도에 따라 해당번호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질문	전 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중간 이다	약간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만들 자신이 있다.	1	2	3	4	5
2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즉시 시작하기 어렵다.	1	2	3	4	5
3	어떤 과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다면 나는 될때까지 계속 노력한다.	1	2	3	4	5
4	나는 새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렵다.	1	2	3	4	5
5	나는 중요한 목표를 세워도 그 목표를 이루어 내지 못한다.	1	2	3	4	5
6	나는 일을 끝마치기 전에 포기해 버린다.	1	2	3	4	5
7	사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며,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다가간다.	1	2	3	4	5
8	나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피해 버린다.	1	2	3	4	5
9	일이 복잡해 보이면 시작해 보려하지 않는다.	1	2	3	4	5
10	사귀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관심이 있다 해도 쉽게 그만 둔다.	1	2	3	4	5
11	맘에 들지 않는 일을 할 때에도 끝까지 해 보려 노력한다.	1	2	3	4	5
12	무슨 일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곧바로 시작한다	1	2	3	4	5
13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할 때 처음에 잘 안되면 곧 포기한다.	1	2	3	4	5

14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을 별로 안보이더라도 내가 사귀고 싶은 사람이면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1	2	3	4	5
15	기대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잘 처리하지 못한다.	1	2	3	4	5
16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너무 어려워 보이는 것은 피한다.	1	2	3	4	5
17	나는 실패하면 더 열심히 노력한다.	1	2	3	4	5
18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상황에서 어색해서 어찌 할 바를 모르겠다.	1	2	3	4	5
19	나는 무슨 일이든 잘 해내지 못할 것만 같다.	1	2	3	4	5
20	나는 자립심이 강한 사람이다.	1	2	3	4	5
21	나는 내 스스로 쉽게 친구를 사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	2	3	4	5
22	나는 쉽게 일을 포기한다.	1	2	3	4	5
23	나는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문제들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것 같다.	1	2	3	4	5

IV. 부모님과 가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 한 명이라도 나에게 질문처럼 해주신다면 ○표 해주세요.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간혹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주저함이 없이 부모님께 내 주장을 한다.	1	2	3	4	5
2	부모님은 항상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	1	2	3	4	5
3	부모님은 나에게 묻지 않아도 내 느낌이 어떤가를 아신다.	1	2	3	4	5
4	나는 부모님과 대화하는 방식에 대해 만족한다.	1	2	3	4	5
5	나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나는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있다.	1	2	3	4	5
6	나는 부모님께 숨김없이 사랑을 표시한다.	1	2	3	4	5
7	나의 질문에 대해 부모님은 솔직하게 대답해 주신다.	1	2	3	4	5
8	부모님은 나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1	2	3	4	5
9	부모님과 함께 문제를 의논하기가 쉽다.	1	2	3	4	5
10	부모님께 나의 모든 진실한 감정을 표현하기가 쉽다.	1	2	3	4	5

V. 다음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과 일치하는 번호를 하나만 골라서 그 번호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을 평소에 어떻게 대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약간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 주신다.	5	4	3	2	1
2	내 마음을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5	4	3	2	1
3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5	4	3	2	1
4	고민을 들어 주신다.	5	4	3	2	1
5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신다.	5	4	3	2	1
6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격려해 주신다.	5	4	3	2	1
7	학교생활을 잘 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다.	5	4	3	2	1
8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신다.	5	4	3	2	1
9	좋은 책이나 필요한 것을 알려 주신다.	5	4	3	2	1

10	나의 부족한 점을 가르쳐 주신다.	5	4	3	2	1
11	올바른 태도를 가르쳐 주신다.	5	4	3	2	1
12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적절한 말씀을 해 주신다.	5	4	3	2	1

